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

이분희*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 현상과 복장유물 |
| III. 양식적 특징과 편년 | IV. 맺음말 |

요 약

현재 사찰에 봉안된 대부분의 나한상은 1624년 순천 송광사 나한상을 시작으로 17세기 이후에 조성된 100여 건의 나한상이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조성된 나한상의 사례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상원사 영산전 봉안 소조상은 정밀조사를 통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소조상들은 조선전기 불상 양식을 띠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최근에 제11존자상의 복장에서 ‘隨求曼荼羅陀羅尼’(1467년)가 발견되어 조성 연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상원사 영산전 소상들은 조선전기 나한상의 귀한 사례로, 당시 소조불의 제작기법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 소조상들은 신체비례는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은 비례와, 얼굴은 가름하지만 양감이 풍부한 뺨에 입체적인 표현에서 조선전기 불상과 불화에 표현된 공통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복장에서 발견된 1467년 다라니는 조선전기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와 흡사한 형식으로 상원사 소조상들의 편년을 1467년으로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상원사 소조상들의 정확한 편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조선전기 나한상 연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조선전기 조성 상으로 추정되는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을 비롯한 조선전기 16나한상의 편년을 세우는데도 상원사 소조상이 기준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단어]

상원사, 영산전, 조선전기, 나한상, 16나한상, 塑造像, 隨求曼荼羅陀羅尼

*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나한신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시대의 나한신앙은 왕실과 집권층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왕실 중심의 나한신앙은 복을 구하고 국난의 극복에서부터 무병장수와 가문의 극복, 극락왕생 등 발원 내용이 매우 다양했다.

중국에서는 唐末五代에 선종의 흥기와 더불어 祖師승배가 성행하면서 조사와 나한을 동일시하고, 승려의 모습을 한 나한상을 조성하여 조사처럼 모셔지는 것이 유행하였다.¹⁾ 한국의 조선전기에도 이러한 조사 승배신앙이 고조되었고, 왕실의 후원 하에 지공과 나옹의 후예들은 그들의 법통을 강조하기 위해 나한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전기 시기에 오대산 상원사에도 나한이 주요 신앙대상으로 모셔졌는데, 1466년 상원사 중건시 나한전을 건립하였다는 기록과,²⁾ 이후에도 나한전이 계속 존속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³⁾

그러나 어느 시기인가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던 나한상이 소실됨에 따라 1886년에 경북 예천 운복사에서 상원사로 현재 봉안된 상들이 이관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내탕금으로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19세기까지 상원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사실을 알려준다.⁴⁾

현재 사찰에 봉안된 대부분의 나한상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1624년 순천 송광사 나한상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에 조성된 100여 건의 나한상이다. 아직까지 조선전기 나한상의 제작 연대가 밝혀진 예는 드물다. 조선전기의 나한상은 오백나한상으로는 영월 창령사 <석조오백나한상>, 나주 불회사 <석조오백나한상>이, 기년작으로는 <正德11年명 실상사 서진암 석조나한상>(1516년) 뿐이다.

1) 이수창, 「나한신앙의 성립과 전개과정」, 『불교문화연구』6, 서울: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5, pp.95~100.

2)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조성발원문」에는 1466년 중창 당시 상원사에 봉안했던 존상명이 기록되어 있다.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十六應眞, 天帝釋王”등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즉 여래상 3구, 보살상 5구, 16나한상, 제석천상 등을 조성해 상원사의 각 불전에 봉안하였다.

3) <상원사 문수전 문수동자상 중수발원문>(1599년)과 <상원사 중창기>(1646년)의 나한전 중수 기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 해석 이종수(순천대학교), 소조상인 제12존자상 중수발원문(1886년)의 하단부에 보면 “...중략...작년 봄 내당고에서 하사된 천금으로 이제 단청과 불사를 마치고 엿드려 바라오니 임금님은 만수무강하고 나라는 평안하며 모든 법계와 그곳의 중생들이 함께 성불의 과보를 이루어 미혹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광서 12년 병술년(1886) 5월 15일에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합니다.”라 하였다.

“...중략...維康熙五十年歲次辛卯四月旬二日天柱山雲覆寺靈山殿左右補處新造安於於此 昨年春自 內帑賜下千金今丹牘又佛事而究 竟伏願 聖壽無疆國界寧晏普與法界 彼彼衆生禾果還度迷淪 光緒十二年丙戌榴月望日奉安于 五臺山上院寺靈山殿

16나한상의 예로는 남양주 흥국사 16나한상은 1650년 중수기록이 발견되어 조성시대를 조선전기까지 올려볼 수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 예천 용문사 나한상, 포항 보경사 나한상들이 17세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조성된 나한상의 사례가 귀한 사정에서, 상원사 영산전 봉안 소조상은 정밀조사를 통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소조상들은 조선전기 불상 양식을 띄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최근에 제11존자상의 복장에서 ‘隨求曼荼羅陀羅尼’(1467년)가 발견되어 조성 연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글은 조선 전기 나한상 연구의 공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들을 대상으로, 소조상의 현황과 복장유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소조상의 양식을 분석하여 편년을 정하고자 한다.

II. 현상과 복장유물

1. 구성과 현황

현재 영산전 안에는 석가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16나한상·제석천상·사자상 등 총 21위의 존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상들은 시대와 재질을 달리한 조선 전기 소조상과 조선 후기 목조상의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 상원사 영산전 나한상 봉안 모습

이들 상들의 복장유물에 1711년 조성발원문과 1886년과 1958년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어, 봉안된 상들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다.⁵⁾ 1711년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협

시보살상과 나한상 6위가 소실되어 목조상으로 새롭게 조성하였고, 그 이전에 모셔오던 소조상인 석가여래상과 나한상, 제석천상과 사자상은 중수하여, 본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적었다.⁶⁾ 이처럼 소조로 만든 상들은 막연히 목조상들을 조성한 1711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최근의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텁게 개채된 층들이 제거됨에 따라 조선전기 불상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상들은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의 크기가 높이 51.2cm로 가장 크며, 제석천상이 높이 47.7cm이며, 사자상과 나한상 10위는 모두 높이 30~40cm의 중소형 상에 해당한다. 이 상들은 모두 좌상이며, 정면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사진 2> 석가여래좌상(높이 51.2cm, 무릎 폭 33.2cm)

조사전	X-선 사진	조사후
-----	--------	-----

5) 상원사 영산전 존상 가운데 본존인 소조석가불상과 좌협시 목조미륵보살상은 2008년에 복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0년 7월에는 두 존상을 제외한 목조제화갈라보살상과 목조 나한상 6구의 복장을 조사하였다. 상원사 영산전 존상에서는 조성발원문(1711년)과 중수 발원문(1886년·1958년) 등 3종류의 조성과 중수에 관한 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존상들의 18·19·20세기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

6) 목조상인 제1존자상의 복장에서 나온 조성발원문(1711년)에 의하면 “옛날에 조성한 불상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여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옛날 모습 그대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좌우 보처위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새로 조성하여 본단에 안치하였습니다. 또한 없는 나한상은 모두 나무로 6위를 조성하고 옛날 나한상은 중수하여 본단에 안치하였습니다. …중략… 강희 50년(1711) 신묘면 4월 12일 천주산 운복사 영산전에 새로 조성한 좌우보처 등 16나한상 가운데 반은 중수하고 반은 새로 조성하여 여기에 봉안합니다.”라고 쓰여있다. 해석 이종수(순천대학교), “上古成佛未能俱存主佛釋迦氏依舊安坐左右補處位無故依旧 新成安于本壇亦無羅漢位具以木相造成六位及古相重修安于本壇讚頌偈文 康熙五十年辛卯四月旬二日天柱山雲禪寺靈山殿新造左右補處等等 十六羅漢中一半重修一半新成安于此…중략…”



<사진 3> 제석천상(높이 47.7cm, 무릎 폭 39.2cm)



<사진 4> 사자상(높이 36.3cm, 무릎 폭 39.2cm)



<사진 5> 제7존자상(높이 37.1cm, 무릎 폭 28.1cm)



<사진 6> 제8존자상(높이 30.5cm, 무릎 폭 27.1cm)



<사진 7> 제9존자상(높이 33.0cm, 무릎 폭 23.5cm)



<사진 8> 제10존자상(높이 33.5cm, 무릎 폭 19.8cm)



<사진 9> 제11존자상(높이 33.5cm, 무릎 폭 27.5cm)



<사진 10> 제12존자상(높이 33.8cm, 무릎 폭 28.2cm)



<사진 11> 제13존자상(높이 33.5cm, 무릎 폭 23.0cm)



<사진 12> 제14존자상(높이 32.6cm, 무릎 폭 26.5cm)



<사진 13> 제15존자상(높이 33.4cm, 무릎 폭 26.5cm)



<사진 14> 제16존자상(높이 33.3cm, 무릎 폭 25.5cm)

한국의 나한전에는 16나한상, 범천, 제석천상, 사자상, 인왕상 등이 함께 봉안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봉안대상이 되는 존상의 구성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경우에는 석가삼존과 16나한상과 제석천상 1위⁷⁾, 사자상이 1위로 총 21위가 남아있다.

석가삼존은 명문 기록에 따라 제화갈라보살·석가여래·미륵보살구성된 授記三世佛 형식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조선후기에 이러한 도상이 나한전 주존불로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 1>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수기삼존불의 구성이 17세기 이전부터 봉안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⁸⁾

<표 1> 17세기 전후의 나한전 존상 구성 비교

시대	존명	본존불	16나한상	제석천	사자	인왕	동자 동녀
17세기 이전	상원사 석가삼존과 16 나한상	석가불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16위	1위	1위		
	남양주 흥국사 석가삼존과 16 나한상	석가불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16위	1위	2위	1위	
	예천 용문사 석 가삼존과 16나 한상	석가불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16위	1위	2위	2위	
	포항 보경사 석 가삼존과 16나 한상	석가여래 문수보살 보현보살	16위		2위		
17세기 이후	순천 송광사 석 가삼존과 16나 한상(1624년)	석가불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16위	2위	2위	2위	
	나주 다보사 16 나한상(1625년)	석가여래 아난 가섭	16위				
	김제 귀신사 석 가삼존과 16나 한상(1633년)	석가불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아난	16위	2위 (소실)	2위	2위	

7) 제석천상에서 발견된 1886년 중수발원문에는 존명을 ‘帝釋桓因位’라고 적었다.

8) 이분희,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 연구」,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상원사, 2022, pp.140~142.

		가섭 석가불					
완주 송광사 석가삼존과 16 나한상(1656년)		제화갈라보살 자씨보살	16위	2위	2위	2위	2위

제석천상은 상원사 제석천상과 예천 용문사 응진전의 예처럼 17세기 이전에는 1위만 봉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7세기 이후에는 기년명으로 가장 이른 1624년작인 <순천 송광사 응진전 석가삼존과 16나한상>에서 알 수 있듯이 16나한상 외의 권속들을 제석 2위, 신장 2위, 사자 2위로 봉안하였고, 1633년에 작성된 <김제 귀신사 상량문>에는 “영산전에 석가모니불과 좌우보처 아난, 가섭과 16나한, 좌우제석과 감재사자와 직부사자를 함께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제석천을 2위로 봉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완주 송광사 나한전에도 2위의 제석천상(1656년)을 봉안하였음을 발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⁰⁾ 또한 위의 명문들을 통해 제석과 범천상으로 알려졌던 상들이 제석천상을 2위로 봉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밀교적 교의에 의하면 제석천은 북제석(北帝釋)과 동제석(東帝釋)이 있다. 북제석은 수미산 제석으로 인간계를 제외한 모든 세계를 관장하고, 동제석은 인간계의 제석이다.¹¹⁾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에 내제석원과 외제석원에서는 왕권 강화와 국난 극복 등을 위한 법회가 빈번히 개최되었다는¹²⁾ 사실로 미루어 제석천상을 2위로 봉안하는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위 명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한전의 제 존상들은 각 존상의 구성이 다를 뿐 좌우대칭에 맞게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조성된 상원사 영산전 제존상의 예는, 17세기 이전의 나한전과 17세기 이후의 나한전 구성과 도상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9) 9) 김제 귀신사 나한상과 관련된 1633년에 작성된 상량문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된 절이 1624-1633년에 중창불사 때 道衡스님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歸信寺 落成文 ……于次□□僧堂已成次正門已成次彌勒寶殿已成後彌勒畫佛安于次 十王殿已成後地藏十王後官眷屬安于次天王門已成四天王造成安于各各方舍 已畢無有羅漢殿或有初僧道衡比丘 嗚乎咄嗟自己發心羅漢殿已成修藏兼後靈教釋迦牟尼佛左右補處阿難迦葉十六阿羅漢左右帝釋監齋使者直符使者建虛神并>

10)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여래좌상 발원문(1656년) : “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此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花竭羅慈氏彌勒十六大阿羅漢與五百多羊聞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孟仲秋…” 『完州 松廣寺』, 韓國敎員大學校博物館(1997)과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자료집,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p.161.

11)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 pp.290-291 참조.

12) 서운길, 「高麗의 帝釋信仰」, 『불교학보』 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8, pp.87-102 참조.

2. 제작기법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은 X-선 촬영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체 중심에 나무나 새끼줄 같은 것으로 심지를 삼고 그 위에 흙을 붙혀 조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자상의 밑면을 통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석가여래상은 팔목부터 손까지는 후대에 나무로 새로 만들어 못으로 연결시켰다. 또한 모든 소조상의 바닥면을 살펴보면 몸체에 방형의 공간을 두었고 복장은 불상 밑면의 복장공을 통해 납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조상들의 하단부에 흙을 덧대어 구불구불하게 암좌 형태의 대좌를 만든 것은 후대에 보수하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상들은 여러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원형이 변하였다. 1958년 이후 가장 후대에 보수할 때¹³⁾ 거칠고 굵은 삼베로 상을 감싸고 그 위에 두꺼운 종이를 바르고 색칠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표현이 많이 달라졌으며, 옷주름과 장식 등 세부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밑의 층위는 1711년 중수시로 추정되는데 아주 가는 삼베로 상을 감싸고, 그 위에 채색을 하였다. 그 아래 층위는 이 소조상을 조성할 당시로 흙으로 성형한 후에 바로 그 위에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조나한상의 등 뒤에 먹으로 밑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 채색한 것이 잘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한상 위에 바로 색칠을 하는 기법은 회암사지 출토 고려말 조선초기 나한상과 백양사 소요대사 부근에서 출토된 나한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식적인 기법이다.

회암사지 출토 소조나한상의 수인과 옷자락(고려말 조선초)		백양사 소요대사 부근 발굴 소조나한상(고려말 조선초기)	
			

<사진 15>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 제작기법 비교

1650년 중수기록이 있어 17세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¹⁴⁾ 그 위에 흙으로 덧붙이면서 형상을 만들었

13) 평창군·상원사·다올건축사사무소(2020), p.206~233. 상원사 영산전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다올건축사사무소의 김선덕 선생의 과학적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1625년작인 나주 다보사 나한상과도 유사하다.¹⁵⁾ 예천 용문사 응진전의 보살상은 손 부위가 손상되어 있어, 나무조각을 새끼줄로 감아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소조로 성형하여 제작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상은 기본 골격을 이루는 나무의 안을 파내어 복장공을 마련하고 있어 상원사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차이가 난다. 이는 소조상의 제작기법이 변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사진 16> 상원사 석가여래상과 흥국사 나한상 제작기법 비교

고려시대까지 소조상의 제작은 주로 목심 등에 거친 점토로 상의 윤곽을 형성하고, 그 위에 고운 점토를 발라 성형하여 구운 테라코타기법을 사용하였다. 혹은 보다 높은 온도로 구어 자기로 만들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시대에는 목조로 기본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점토를 덧붙여 성형하고 건조시킨 다음, 다시 회칠을 한 후 금을 입히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원사 소조상은 상의 중심에 나무나 새끼줄로 심을 삼고 그 위에 흙으로 성형한 것이며,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은 목심을 두고, 그 안을 파서 복장공을 마련하고 있어 상원사 소조상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원사 소조상은 고려시대와 조선후기시대를 이어주는 조선전기 소조불의 제작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4) 2010년 3월 남양주역사박물관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목재연료소재은행과 동북아불교 미술연구소가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을 X-ray 촬영을 통하여 제작 방법을 찾아내었다. 박원규, 김상규, 최선일,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의 X-ray촬영 및 구조조사2」,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목재공학회, 2013, p.130~131.

15) 김희경, 「守衍 作 나주 다보사 영산전 16나한상(1625)과 그 의의」, 『미술사와 문화유산』13,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4, pp.127~138.

16) 박원규, 김상규, 최선일, 앞의 논문, p.130, 그림1 인용.

3. 복장유물

최근 2023년에 소조나한상에 대한 본격적으로 복장 조사가 이루어져, 나한상, 제석천상, 사자상 내부에서 중요한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각 존상에서 수습된 복장 유물은 <표 2>과 같다.

<표 2>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복장 유물 목록¹⁷⁾

No.	존상	유물명	수습위치	수량
1	석가모니불상	후령통	밑면	-
2	제7가리가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2건 3점
		발원문	밑면	2건 2점
3	제8별사라불다라존자상	다라니편	밑면	1건 1점
		발원문	밑면	2건 2점
4	제9술박가존자상	다라니편	밑면	1건 1점
		발원문	밑면	2건 2점
5	제10반탁가존자상	다라니편	밑면	1건 1점
		발원문	밑면	2건 2점
6	제11나호라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3건 4점
		발원문	밑면	2건 2점
7	제12나가서나존자상	다라니편	밑면	1건 1점
8	제13인게라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2건 4점
9	제13인게라존자상	발원문	밑면	2건 2점
10	제14별라바사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2건 2점
11	제15아지다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2건 2점
12	제15아지다존자상	발원문	밑면	2건 2점
13	제16주도반탁가존자상	다라니편 등	밑면	5건 5점
14	사자상	다라니편	밑면	1건 1점
15	제석천상	다라니편 등	밑면	1건 4점
		발원문	밑면	1건 1점
합계	다라니편 22건 29점	발원문 15건 15점	= 총 37건 44점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수습된 다라니는 ‘수구다라니’이다. 수구다라니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불교 주문으로 7~8세기 중국에서 한역 경전을 통해 알려졌다. 수구다라니를 설한 경전의 한역본은 693년에 寶思惟가 한역한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1권과 746-774년 사이에 不空이 한역한 『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2권, ¹⁸⁾ 『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儀軌』(이하 불공 역 『성불수구즉득신변다라니』)가 있다. 이 중 보사유

17) 상원사, 「평창 상원사 영산전 석가삼존·십육나한상 및 권속」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신청서, 상원사, 2023, p.35. <표 1>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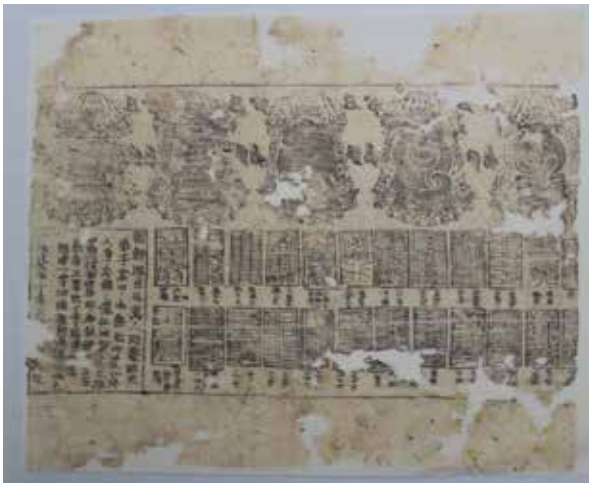
18) 옥나영,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53, 이화사학연구회, 2016, pp.147~148.

역 『수구즉득다라니』와 불공 역 『보편광명대수구다라니』에는 수구다라니의 서사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세 경전은 서사된 수구다라니의 ‘착용’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사후세계 이익을 공통적으로 피력한다.¹⁹⁾

우리나라에 『수구다라니경』은 『삼국유사』의 「臺山 五萬眞身」)에서는 보천이 수구다라니를 지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고 하였고,²⁰⁾ 해인사 묘길상탑에서 발견된 <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睞記>²¹⁾ 에서는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를 『무구정광대다라니경』등과 함께 탑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에서는 수구다라니를 염송하기도 하였고, 서사하여 탑에 납입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成宗 16년에 간행된 『五大眞言』에 수록된 5개의 진언 가운데 <수구즉득다라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 조선에 걸쳐 수구다라니를 염송하거나 서사하여 납입하는 등의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²⁾.

중국의 수구다라니는 주로 분묘에서 출토된 반면 신라시대에서는 해인사 묘길상탑 등의 예처럼 탑에 수구다라니가 봉안되는 경우가 있었고, 고려시대부터는 수구다라니의 대다수는 불복장에서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상원사 제11존자상 복장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1467년)는 발원문이 남아 있어 소조상의 제작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사진 17> 수구다라니(1467년)

19)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309, 2021, p.8.

20)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臺山 五萬眞身.

21) 「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睞記」.

22) 옥나영(2016), 위 논문, pp.147~148.

11존상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의 하단 향좌측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京外萬人同發願文
弟子某甲亦無始六道今得
人身念佛〃像仏油〇〇水陸
甲契諸香徒毎年春秋供養三寶
勤修正果世〃生〃同成佛道
隨求一字功德尋想(?)俱博成佛也
成化三年丁亥〇〇〇〇〇〇²³⁾

이는 萬人이 함께 발원한 내용으로, 수록갑계를 결성한 향도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삼보에 공양하고 수행을 통해 성불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수구다라니의궤』에 등장하는 俱博의 사례와 같이 선행을 하지 않고 죽었어도, 해골 위에 낡은 탑에서 날아온 수구다라니 한 장의 효험으로 무구불이 된 것처럼,²⁴⁾ 이 불사에 참여한 향도들이 구박처럼 수구다라니의 효험으로 성불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불사에 수록갑계 만인의 향도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수록갑계’라는 것은 수록재를 지내기 위해 여러명이 모여 수행과 불사에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다. 사찰계는 정토왕생을 기원하거나 가람의 신축과 보수, 경전 간행, 각종 재를 지내는 등 신앙행위를 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이다. 1492년(성종 23) 금산사 5층석탑 중수에 참여한 금산사 염불계는 염불향도들이 불사의 후원자로 나서고 있고 신앙결사체적 성격과 아울러 경제적 지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례이다.²⁵⁾

또한 1450년에 제작된 <통도사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불>은 약 400여 명의 僧俗 香徒로 결성된 염불향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²⁶⁾ 이러한 향도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앙을 목적으로 결성된 향도들의 모임이 불사의 보시와 같은 부분적인 補寺활동에서 경제적 성격이 더 강해진 ‘契’의 형태로 바뀐다. 1564년(명종 19) 무렵에 성립된 사명대사(1544~1610)의 甲契는 대표적인 예이다.²⁷⁾ 갑계는 ‘동

23) 상원사, 위 보고서, p.45 인용.

24) 상원사, 위 보고서, pp.45~46.

25)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研究」, 『불교와 사회』8,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6, pp.92~94.

26) 張忠植, 「通度寺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記에 대하여」, 『通度寺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綜合的考察』, 通度寺聖寶博物館, 1991, pp.28~30.

27) 李載昌, 「朝鮮朝 社會의 佛教敎團」,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1993, pp.143~202.

갑계'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찰에 거주하는 동갑의 스님들이 계금을 출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다. 갑계의 가장 빠른 예가 사명대사 갑계인데, 상원사 소조상의 다라니를 통해 1467년에도 이러한 갑계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불상 가운데 수구다라니가 납입된 불상으로는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²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²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³⁰⁾ 등이 대표적이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는 수구다라니가 인쇄되어 있는 <절첩 수진본 다라니경>이 발견됐다.³¹⁾ 수구다라니는 불상의 바닥(자운사)과 무릎(보광사), 그리고 불상의 머리(국박소장 관음보살좌상)에 안립되어 있었다.

상원사 11존자상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는 다라니의 명칭이 적혀있지 않지만 향좌측 발원문의 내용과 모양으로 수구다라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의 형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종이의 중앙에 다라니가 찍혀 있고, 다라니는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부에는 보살형의 인물을 중심으로 주연부는 서사된 다라니가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수구다라니는 중앙부의 도상과 주연부, 외곽부의 형태 및 표현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크게 도상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반면 11존자상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는 방형의 테두리 안에 3개의 보주형 佛印과 2개의 탑형 불인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간행된 다라니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인과 탑인이 새겨져 있다. 불인은 부처의 형상을 도장처럼 찍는 것으로, 이는 부처의 형상뿐만 아니라 부처의 내재성을 형상화한 種子로 표시되기도 한다. 상단의 세 개의 보주형 불인에서 가운데 불인은 <불정심인>이며, 향우측은 <비로자나인>, 향좌측의 불인은 <석가여래화압>의 형태이다. 상단 좌측으로 <탑인>과 사리병형태를 한 <사리병인>이 있다.³²⁾ 하단에는 두단으로 12개씩 부적인을³³⁾ 배치한 형태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수구다라니의 형식은 진언과 다라니, 여러 부적인을 모아놓은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옥나영(2016), 위 논문, pp.147~180.

29) 서병패,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pp.75~90.

3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I, 국립중앙박물관, 2014, p.80.

31)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願堂』,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32) 문상련(정각), 「불인과 탑의 한국 수용과 전개」, 『미술과 초자연-2023 동악미술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동악미술사학회, 2023, pp.23~63.

33) 부적이라 하면 흔히 민속신앙에서 사용했던 부적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한국 불상 안에 넣어졌던 腹藏物 중에서는 불교전통 안에서 기원되고 사용되었던 수십 가지 종류의 다양한 '불교 부적'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상련(정각).김연미, 문상련(정각).김연미, 「고려 후기 불교 부인(符印)의 전개」, 『불교학보』96, 2016. p.134.

상원사 소조상의 수구다라니의 불인과 같은 형태의 다라니는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의 복장에서 발견된 <성불수구대다라니>(1375년)이다. 경 첫머리엔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제목에 ‘성불수구대다라니’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권미에 발원문 내용 앞에 상단에 크게 상원사 다라니와 같은 순서는 다른지만, 불정심인과 비로자나인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후기에도 이러한 다라니가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8>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상 성불수구대다라니, 1375년

또한 조선전기에도 이어져 같은 형태의 다라니가 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상 복장물인 ‘隨求一字功德經神又集靈呪’(1456년, 사진 18)에도³⁴⁾ 같은 형태의 불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다라니는 향좌측의 발원문 내용에 다라니명칭이 등장하며, 1456년에 간행한 것이 적혀 있다. 상단에는 2개의 큰 불인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여러 부적인들이 있다. 또한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1596년 중수) 복장에서도 중대 사자암의 복장물과 동일 판본의 ‘수구일자공덕경신우집영주’(1456년, 사진 19)³⁵⁾가 발견되었다.

34)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복장에서 발견된 『集靈呪』라 불리는 목판 인출본은 조선시대 1456년 信眉와 學悅, 永嘉府夫人 申氏가 18종의 불교 부인들을 취합해 제작한 이 목판 인출물의 명문에는 “靈呪를 모아 간행”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呪는 주로 진언과 다라니 등의 주문을 이르는 단어임에도, 불교 부인을 靈呪라고 칭하고 있는것이다. 이 명문을 통해 조선 초기에 이르면 부인이 일종의 다라니처럼 인식되어 부인과 진언, 다라니의 구분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상련(정각).김연미, 위 논문. p.134.

35) 상원사, 위 보고서, p.45~46.



<사진 19> 월정사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 불상 수구만다라, 1456년



<사진 20>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 복장 수구만다라, 1456년

조선전기 불상의 양식을 띄고 있어 조선전기 불상으로 유추되는 월정사 사자암 비로자나불상과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에 같은 형태의 수구다라니가 복장에 넣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조선전기 불상에 수구다라니를 복장물에 봉안하는 신앙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원사 소조상에서는 다른 형태의 ‘성불수구다라니’가 7, 11, 13, 16 존상에서 8장이 발견되었다. ‘成佛隨求’) 제목 아래 원 안에 범어 다라니를 새긴 다라니로 조선시대 수구다라니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상원사 소조상에서 발견된 다라니는 후대에 넣어졌을<사진 21> 성불수구다라니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수구다라니가 조선전기 불상에서 발견된 점과 형식은 다르지만 다른 존상에서도 수구다라니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11존상에 넣어진 다라니는 조성시기에 넣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다라니에 대한 성분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양식적 특징과 편년

1. 석가여래상

1) 두상과 신체비례

상원사 영산전의 주존불인 석가여래는 조선전기 불상 양식이 뚜렷하게 표현된 불상이다. 이 상은 고려말 조선전기 한국불상에 영향을 준 명대 불상과 비교 할 수 있다. 석가여래상의 머리에는 두단으로 쌓아올려 높게 솟아난 육계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메트로박물관 목조불좌상(1411년, 명대)과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상

(1450년, 명대)과 흡사하여 명대불상의 영향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호표현에서도 가름한 얼굴과 발제선이 내려와 좁아진 이마, 오흑하게 솟은 코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눈썹으로 이어지는 선, 자연스럽게 치켜올라간 눈과 부드러운 눈두덩이로 인해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 짧은 인종과 단정하게 다문 작은 입 등에서 명대 불상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석가여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목조불좌상(1411년, 명)-34567	북경 수도박물관 소장 불상 (1403~1424, 명 永樂 年間)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1450년, 명)
			

<사진 22> 상원사 영산전 석가여래상과 명대 불상과의 비교 1

석가여래상은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은 신체비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비례 역시 명대불상의 영향으로 고려말 조선전기 불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북경 수도박물관 소장 불상(1426~1435년, 명대)과 북경 수도박물관 소장 불상(1403~1424, 명대),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1450년, 명대)처럼 긴 상체에 낮은 무릎을 한 형태이다.

석가여래	북경 수도박물관 소장 불상 (1426~1435년, 명 대, 宣德年間)	북경 수도박물관 소 장 불상(1403~1424 년, 명대, 영락년간)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1450년, 명대)
			

<사진 23> 상원사 영산전 석가여래상과 명대 불상과의 비교 2

이런 두상의 표현과 신체비례는 조선전기작인 익산 심곡사 탑 출토 불상, 흑석

사아미타불상(1452년), 조선전기 금강산 출토 아미타삼존불상(1451년), 국박소장 천주사아미타불상(1482년)에서 나타나듯이 명대불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 조선전기에 제작된 한국불상에서도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이다.

석가여래	익산 심곡사7층석탑 봉안 불상 본존불(조선초기)	흑석사 아미타불상 (1452년)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
			

<사진 24>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과 조선전기 불상의 신체비례 비교

2) 착의법

석가여래상은 오른쪽 어깨에 대의가 반달형으로 걸쳐져 있는 변형된 편단우견식 착의를 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불보살상의 착의법은 상의 오른쪽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중으로 상의를 입거나 편단우견 형식이다. 이렇게 변형된 편단우견식 착의법은 조선전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식으로, 이후 조선후기 불상으로 이어져서 나타난다. 이러한 착의법의 새로운 요소도 명대 불상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명대불상에서는 금동불인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1450년) 뿐만 아니라 대동 상화엄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세불(1427년), 태원 다복사 대웅보전 소조삼불상(명 1458년 혹은 1469년 추정) 등 사찰에 봉안된 소조불과 목조불 등에 자주 등장하는 형식으로, 재료나 봉안형태와 관계없이 자주 등장한다.

석가여래상의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반달형으로 감싸고 배 앞을 지나면서 왼팔목 부근에서 옷의 끝단은 넓은 옻의 모양을 만들고 왼쪽 어깨위로 걸쳐지면서 넘겨진다. 그런데 배면에서 보면 대의 안에 승저지를 입은 듯이 사선으로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같은 형식으로 옷을 입은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과 제 11존자상 그리고 영암 도갑사 대웅보전 보살입상과 비교하여 볼 때 사선으로 표현된 옷주름은 오른쪽 겨드랑이로 모아지는 옷주름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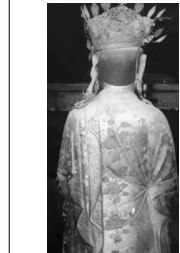
내의의 상단은 양감이 표현된 가슴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불상의 내의상단이 가슴위까지 올라간 형태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거의 끝단만 보이도록 묶은 때매듭이 표현된 내의 상단의 형태도 명대 불상과 공통된 특징이다.

앞은 하체의 옷주름은 낮은 둥근 무릎이 드러나도록 비교적 팽팽하게 당겨져 표현되었다. 무릎 하단에서 접혀진 3~4줄의 선들도 자연스러운 편이며, 허벅지 부근에서 호선을 그리는 옷주름도 조선전기 흑석사 아미타불상(1452년)이나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과 유사하다. 이러한 옷주름은 삼척 천은사 보살상과 남양주 흥국사 석가삼존상(1650년 중수)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소조여래상의 높고, 뾰족한 두상과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착의법의 표현에서 명대불상과 그 영향으로 조성된 조선전기 불상들과 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얼굴과 신체, 무릎이 모두 방형의 형태로 진행되는 조선 후기 불상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으로 이 불상이 조선전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여래	대동 상화엄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세불, (명대, 1427년). (©-강삼혜)	북경 수도박물관 약사불 (1450년, 명대)	평요 진국사 삼불루 소조비로자나삼신불, 명대, (©-강삼혜)	태원 다복사 대웅보전 소조삼불상, (명대, 1458년, 혹은 1469년 추정. ©-강삼혜)
				

<사진 25>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과 명대 불상의 착의법 비교

석가여래	제 11존자	영암 도갑사 대웅보전 보살입상, 15세기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	포항 대성사 불상
				

<사진 26>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과 명대 불상의 착의법 비교

2. 소조나한상

가) 얼굴과 신체표현

상원사 소조나한상들은 석가여래상과 양식이 비슷하므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들은 어깨가 좁으며, 어깨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은 신체비례는 조선전기작인 흑석사 아미타불상(1452년)이나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과 같다.

나한상의 얼굴도 석가여래상과 마찬가지로 작고 가름한 편으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뺨에 양감이 풍부하다. 이목구비의 가장 큰 특징은 눈두덩이와 눈의 표현, 코와 인중, 입, 그리고 턱에 아주 깊게 굴곡을 주어 얼굴이 매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볼에 양쪽으로 주름을 잡는 등 섬세한 부분도 잘 조각되어 있다.

이렇게 가름한 얼굴형에 양감이 풍부한 뺨에 긴 코와 작은 입의 상호표현은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상(1452년)이나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약사십이신장도(16세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조선전기 불화와 불상 얼굴의 양식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제8존상)	흑석사 아미타불상 (1452년)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 (1482년)	영암 도갑사 대웅보전 보살입상(소실 됨), 15세기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약 사 십이신장도 (16세기)
				

<사진 27>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과 조선전기 불상의 얼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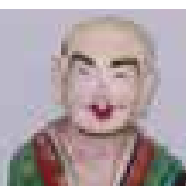
17세기 전반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상은 대략 제작연대가 밝혀진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1650년 중수) 이외에도 예천 용문사, 포항 보경사 나한상을 들 수 있다. 나한상은 승려를 형상화한 것으로 특징상 정형화된 부처의 얼굴과 다르게 다양한 표정과 사실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조선 후기 나한상과 비교하여 보면 과장된 표정이 자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재도회』(1607)는 1614년 李晬光의 『芝峰類說』에 등장하므로, 17세기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나한도 도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져 있다. 특히 여수 흥국사 16나한도(1723년)와 순천 송광사 16나한도(1725년)등 전라도 지역의 나한을 그린 불화와 이보다 약 1세기 빠르게 조성된 순천 송광사 응진당 16나한상(1624년)의 모습이 <삼재도회>의 도상과 일치하고 있다.³⁶⁾

그런데 순천 송광사 16나한상(1624년)과 여수 흥국사 16나한상(1655년)에서 살

펴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나한상들에 화보에 표현된 인물들이 자주 등장과는 것과는 다르게 상원사 16나한상의 도상은 위 화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공통된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원사 16나한상은 17세기의 나한상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정면향을 하고 있으며, 수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한쪽 발을 잡고 있는 형태로 신체에서 떨어지지 않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형태는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매우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나한상들의 눈두덩이 없는 눈과 커진 입, 커다란 코가 표현된 상호, 목과 이마에 굵은 주름을 새기거나 과장된 표정, 커다란 포즈를 하고 있는 형태와 차이가 난다. 이에 비하여 상원사 소조나한상의 얼굴표현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살아 있는 표정에서 세련된 작품수준을 보여준다.

제7존상	제9존상	13존자상	제14존상	15존자상
				
남양주 흥국사 16나한상 (1650중수,3존자)	예천 용문사 16나한상	순천 송광사 12존자상 (1624년)	나주 다보사 16나한상 (1625년)	여수 흥국사 14존상(1655년)
				

<사진 28>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과 16세기-17세기 나한상의 얼굴 비교

소조나한상의 후대에 개철된 두꺼운 층을 벗겨낸 모습을 살펴보면 신체의 어깨와 무릎 등에서도 부드러운 부피감이 느껴지며, 유려한 선의 표현과 볼륨감 있게 조각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이고 경직된 선들의 표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착의법

상원사 소조나한상들의 착의법의 유형은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형식에는 제

36) 신은미, 2006, 「朝鮮後期 十六羅漢圖 研究-畫譜圖像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225~257.

11존자상	남양주 흥국사 16나한상 (1650중수,3존 자)	순천 송광사 16나한상(1624 년, 10존자)	여수 흥국사 16나한상 (1655년)	개암사 16나한상 (1677년)
				

<사진 29>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의 좌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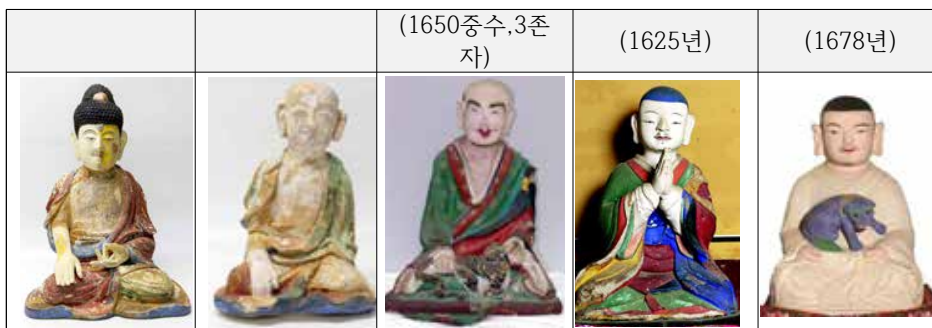
7존상과 15존상이 해당된다. 이 형식에 해당되는 나한상은 왼쪽 가슴에 가사장식으로 가사를 묶고, 대의는 목아래에서 V자형으로 여며진 모습이다. II 형식은 제8, 12, 14존상이 해당된다. 이 나한상들은 석가여래처럼 대의를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으로 걸쳐져 입었는데, 앞에서 옷을 여민 형식이 V자형으로 넓게 벌어진 모습이다. III형식은 9존상, 10, 11, 13존상이 해당된다. 이 형식은 II 형식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었는데 대의가 배 앞에서 크게 U자형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이처럼 상원사 소조나한상들은 I 형식에 해당하는 가사를 왼쪽 어깨에서 묶은 제7존상과 제15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II 형식과 III형식에 속하므로, 석가여래와 비슷한 방법으로 옷이 표현되어 나한상의 착의법으로는 매우 독특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I 형식 (제7, 15존상)	II 형식 (제8, 12, 14존상)	III 형식 (제9, 10, 11, 13존상)
		

<사진 30>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의 착의법 유형

석가여래	11존자상	남양주 흥국사 16나한상	나주 다보사 16나한상	청도 덕사 16나한상
------	-------	------------------	-----------------	----------------



<사진 31>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의 착의법 비교

또한 제11 존자상의 오른쪽 어깨위에 걸쳐진 반달형의 옷자락에 목 부근에서 삼각형으로 접혀진 옷주름은 명대불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요소이며, 조선전기 불상인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상(1452년)이나 국박소장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에서도 나타난다. 제8존상, 12존상, 16존상에 표현된 가사자락이 왼쪽 어깨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펄럭이는 옷주름은 고려 후기 불상인 서산 개심사 아미타불상(1284년 하한)에서 등장하는 지그재그식의 주름과 유사한 표현이다. 이후 조선전기 불상인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아미타불상과 영암 도갑사 보살상에서도 보이는 조선전기 불상의 양식이다. 이러한 공통된 옷주름의 표현은 상원사 소조상들의 조성시기가 조선전반기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32> 상원사 영산전 존상과 조선전기 불상의 의습선 비교

상원사 영산전의 15존상과 16존상 등에서 표현되는,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덮으면서 끝단이 접히는 옷주름의 표현도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1466년 경주 왕룡사원 아미타불상 등 조선전기 불상에 자주 나타난다. 상원사 영산전의 석가여래상과 제9, 10, 11존자에 나타나는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내려온 대의가 반전되

어 배 앞으로 돌아가는 형태는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석가삼존상(1650년 중수)과 유사하다.

제15존상	경주 왕룡사원 아미타불상(1466년)	남양주 흥국사 미륵보살상(1650중수)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상(1565년)
			

<사진 33> 상원사 영산전 존상과 조선전기 불상의 의습선 비교

상원사 소조상들의 양 무릎 아래에서 발목으로 모아지면서 두 줄의 직선적인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무릎 아래쪽으로 몇 개의 주름선이 모아져 표현되는 것은 낮은 무릎의 비례를 보이는 조선전기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상(1452년)이나 천주사 아미타불상(1482년)과 유사하다. 이러한 옷주름은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석가삼존상(1650년 중수)에서도 나타나며,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상(1565년), 1579년에 제작된 경주 왕룡사원 석가여래·약사여래좌상³⁷⁾, 문경 봉암사 아미타불좌상(1586년)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조상들의 옷주름 끝단을 과장되게 너풀거리면서 번잡스럽게 처리한 선들은 역시 보수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3. 제석천상과 사자상

1) 제석천상

가) 자세

상원사 소조제석천상도 영산전에 다른 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후대에 개철된 두꺼운 층을 벗겨낸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은 양감이 풍부한 편이며 어깨와 무릎 등에 부드러운 부피감이 느껴지며, 볼륨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 상은 현존하는 제석천상이 모두 의자상임에 비해 좌상의 형태로 불화에서도

37) 본래 경산 환성사(還城寺)가 원 봉안처인 1579년 「발원문」과 1716년 「중수기」가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도상이 밝혀진 사례이다.

좌상의 제석천은 사례가 없어 유일한 상이다. 조선전기작인 상원사 목조제석천상(1466년 추정)과 17세기 이전작인 남양주 흥국사 제석천상, 예천 용문사 제석천상도 의자에 앉은 좌세이며, 이후 순천 송광사 제석천상(1624)처럼 17세기 이후 상들도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이다.

제석천상	남양주 흥국사제석천상 (1650중수)	예천 용문사 제 석천상	안동 광흥사 제석천상	순천 송광사 제 석천(1624년)
				

<사진 34> 상원사 소조제석천상의 자세 비교

남양주 흥국사 제석천상, 예천 용문사 제석천상, 안동 광흥사 제석천상은 상원사 제석천상과 마찬가지로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다. 17세기 이후에 나한전에 봉안된 제석천상은 순천 송광사의 제석천상(1624년)과 의성 대곡사 나한전 제석천상(17세기 중반)처럼 두손을 배 앞에 모으고 汗衫으로 손을 가리거나 두 손을 맞잡은 형태도 종종 등장한다.

나) 보관과 영락장식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삼산관의 형태이다. 제석천상의 보관도 흙으로 제작하였고 머리와 일체형이다. 보관의 하부와 상부에 띠를 두르고 그 안에 연주문으로 장식하였고 앞면에는 보상당초문으로 장식하여 중앙에 寶瓶 같은 것을 새겼다. 남양주 흥국사 제석천상(1650년 중수)도 비슷한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지만 상원사 제석천상의 보관이 보다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파계사 관음보살상 (1447중수)	상원사 제석천상 보관	남양주 흥국사 제석천상 보관
----------------------------	-------------	-----------------



<사진 35>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의 보관 비교

고려말 조선전기까지 높은 원통형 보관에 금속을 오려 붙혀 장식하거나 투각한 화려한 원통형 보관이 유행한다. 상원사 제석천상의 보관은 이보다 간략화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소재가 흙이어서 표현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관의 상하부를 장식한 연주문은 파계사 보살상의 상부와 하부를 원형으로 보석을 감입한 보관 장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연주문의 장식은 제석천상의 팔뚝과 팔목의 장신구, 허리에 두른 衣帶에서도 사용되었다.

안동 보광사	경천사탑4층 원통회 관음보살상(1348 년)	상원사 제석천상	해인사 대적광전 관음보살상(1351 년)	무량사 오층석탑 관음보살상
				

<사진 36>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의 영락 비교 1

보광사 관음보살상과 같이 고려시대부터 보살상의 가슴에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늘어지게 장식한 영락장식은 조선전기까지 유행한다.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과 대구 파계사 관음보살상(1447년 중수)은 영락장식이 가슴에 밀착되게 표현되었다. 이에 비해 경천사탑 4층 원통회 관음보살상(1348년), 해인사 대적광전 관음보살상(1351년), 해인사 원당암 관음보살상(조선전기)과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관음보살상의 영락장식은 가슴의 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과 늘어지는 선들을 연주문으로 장식한 표현기법인데, 상원사 제석천상은 이와 유사하다.

상원사 제석천상은 양 무릎에도 가슴에 표현된 것과 비슷한 중앙에 원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늘어지는 영락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안동 봉정사 관음보살상과 보광사 관음보살상처럼 고려시대 보살상에 이어 조선전기 상원사 목조제석천상(1466년 추정)과 파계사 원통전 관음보살상과 낙산사 관음보살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무릎에 표현된 영락장식은 조선전기 15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무량사 탑에서 나

온 보살상을 하한으로 이후 16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 (고려후기)	상원사 목조제석천상 (1466년 추정)	대구 파계사 관음보살상 (1447중수)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관음보살상
				

<사진 37>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의 영락 비교 2

다) 착의법

이 상은 어깨에 雲肩을 두르고, 그 위에 천의를 걸쳤으며, 합장한 양팔 위로 천의가 늘어져 있는 천부상의 복식을 하고 있다. 운견은 원대 남녀 즉 몽골인이 사용한 피견의 일종으로 四垂雲 형태이다. 같은 모양의 운문이 가슴과 등, 양 어깨의 4곳에 똑같이 늘어져 있고, 운문 안 쪽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5색에 금을 삽입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다.³⁸⁾ 이러한 운견은 명대, 만력연간에 유명했던 소설인 『金瓶梅』의 삽도에도 보이는 것처럼 명대의 복식에도 나타난다.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		金代 張瑀 <文姬歸漢圖卷> 中 ³⁹⁾	명대, 萬曆年間), 『金瓶梅』의 삽 도 ⁴⁰⁾	1483, 일본 福井 縣 永平寺 소장 의 <三帝釋天圖 ->
				

<사진 38>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의 운견 비교

상원사 제석천상의 운견의 표현은 남양주 흥국사 제석천상과 1483년에 그려진 일본 永平寺 소장의 <三帝釋天圖>와 비슷하나, 이보다 운문까지 정교하게 표현되

38) 김미자, 「원의 운견에 관한 연구」, 『服飾』53(한국복식학회, 2003), p.127~128.

39) 김미자, 앞논문, p.130. <도 7> 인용.

40) 『中國古代의服飾연구』(京都書院, 1995). p 464. <도 220> 인용.

어 있다. 합장한 두 팔에는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옷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양 어깨에 걸쳐서 내려온 천의자락이 어깨쯤에서 한번 접혀서 부드럽게 흐르내리는 듯 유연하다. 팔목과 팔뚝에는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제석천상, 예천 용문사 제석천상보다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	상원사 목조제석천상 (1466년 추정)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제석천상	예천 용문사 제석천상
			

<사진 39> 상원사 소조 제석천상의 착의법 비교

2. 사자상

사자상은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원령포를 입고 있다. 복두를 묶는 띠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고, 걷어진 소매를 펴력거리게 묘사하였다. 얼굴은 가름한 편으로, 수염을 그렸으며, 복두아래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먹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형태는 자연스러우며,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매우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 긴 봉을 들고 있다. 복두의 표현은 남양주 흥국사 응진전의 사자상과 유사하나 흥국사 사자상은 스카프를 메고 있으며, 소매의 펴력임도 과장되어 있다.

상원사 사자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세인데, 사자는 대부분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형상이 대부분인데, 특이한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자세의 사자는 조선후기 보은사 복천암 나한전의 사자상 1위가 있을 뿐이다.

상원사 소조 사자상	남양주 흥국사 소조 사자상	예천 용문사 소조 사자상	순천 송광사 소조 사자상	김제 귀신사 소조 사자상	안동 광흥사 소조 사자상
------------	----------------	---------------	---------------	---------------	---------------



<사진 40> 상원사 소조 사자상의 작의법 비교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된 소조상들의 양식이 17세기 초반의 기년명 나한상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들은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으며, 어깨가 각지지 않고 부드럽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얼굴과 신체, 무릎이 모두 방형의 형태로 진행되는 조선시대 17세기 불상들과는 차이가 나는 조선전기 불상의 양식이다. 신체비례와 얼굴 표현에도 16세기 이전에 조성된 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복장에서 나온 1467년 수구다라니 발원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석천상은 좌상의 형태로 현존하는 유일한 상으로 영락장식 등이 조선전기 불상 양식과 상통하므로, 이 상들의 편년을 조선전기로 정할 수 있다.



<사진 41> 보은 복천암 사자상
조선후기

IV. 맺음말

이처럼 상원사 영산전 소상들은 조선전기에 조성된 나한상의 귀한 사례로, 소조 불의 제작기법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 1711년 소실된 상들을 목조로 조성할 때, 소조상들은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조상들의 신체비례는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은 비례와 어깨가 좁으며, 얼굴은 가름하지만 양감이 풍부한 뺨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얼굴도 조선전기 불상과 불화에 표현된 공통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복장에서 발견된 1467년 다라니는 조선전기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수구다라니와 흡사한 형식으로 소조상들의 편년을 조선전기로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상원사 소조상들이 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전기 불상의 양식을 회복하여 정확한

편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조선전기 나한상연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상원사 소조상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나한상들의 특징상 오랜 세월동안 여러번 중수되는 과정에서 상이 크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을 비롯하여 예천 용문사, 포항 보경사, 강릉 보현사의 나한상들도 이러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상의 편년을 세우는데도 상원사 소조상이 기준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京都書院, 『中國古代の服飾연구』, 1995.
-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전광역시/충청남도 자료집 2004.
-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 자료집, 2006.
-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 문화재청, 『2011년 중요동산문화재 소조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2011.
- 평창군, 상원사, 다올건축사사무소, 『평창 상원사 영산전 석가삼존·십육나한상 및 권속 복장유물 실측조사보고서』, 2020.
- 상원사, 『평창 상원사 영산전 석가삼존·십육나한상 및 권속'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신청서』, 2023.
-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97.
- 해인사성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願堂』, 2017.
- 강삼혜, 「고려시대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 연구」, 『동원학술논문집』21, 한국고미술연구소, 2020.
- 김미자, 「원의 운견에 관한 연구」, 『服飾』53, 한국복식학회, 2003.
-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 309, 한국미술사학회, 2021.
- 김희경, 「수연(守衍) 作 나주 다보사 영산전 16나한상(1625)과 그 의의」, 『미술사와 문화유산』13,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4.
- 문명대, 「태안 백제마애삼존불상의 신연구」, 『불교미술연구』,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
- 문상련(정각).김연미, 「고려후기 불교 부인(符印)의 전개」, 『불교학보』96,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16.
- 문상련(정각), 「불인과 탑인의 한국 수용과 전개」, 『미술과 초자연-2023 동악미술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동악미술사학회, 2023.
- 박원규, 김상규, 최선일, 「남양주 흥국사 나한상의 X-ray촬영 및 구조조사2」,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목재공학회, 2013.
- 손희진, 「고려시대 佛像의 腹藏 阿字圓相隨求陀羅尼 연구」, 『불교미술사학』34, 불교미술사학회, 2022.
- 박원규, 김상규, 최선일,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목재공학회, 2013.

- 서병패,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전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 서윤길, 「高麗의 帝釋信仰」, 『불교학보』 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8.
- 신은미, 「朝鮮後期 十六羅漢圖 研究-畫譜圖像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옥나영,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회, 2016.
- 유근자,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유물 조사의 의의 기록 연구」, 『평창 상원사 영산전 석가삼존·십육나한상 및 권속 복장유물 실측조사보고서』, 평창군·다올건축사사무소, 2020.
- ,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45, 국학연구회, 2021.
- ,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30, 선문화연구회, 2021.
- 이수창, 「나한신앙의 성립과 전개과정」, 『불교문화연구』6,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5.
- 이분희, 「회암사지 출토 여말선초 소조상 연구」, 『정토학연구』26, 한국정토학회, 2021.
- ,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研究」, 『불교와 사회』8,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6.
- ,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 연구」,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상원사, 2022.
- 정병삼, 「한국의 나한신앙」, 『창령사 터 오백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18.
- 정은우, 「남양주 흥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 『동악미술사학』10, 동악미술사학회, 2009.

【Abstract】

Characteristic of statuettes enshrined in Yeongsanjeon Shrine of
Sangwonsa Temple

Yi Boon-hee

(Cultural Affairs Team Leader,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eadquarters)

The statuettes of arhats enshrined in the Yeongsanjeon Shrine of Sangwonsa Temple include about 100 arhats that were made after the seventeenth century, including those originally enshrined at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in 1624.

A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statuettes enshrined in Sangwonsa Temple has revealed that they are rare artifacts dating back to the early Joseon period, thus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from historians. These molded sculptures exhibiting the characteristic style of Buddhist art of the early Joseon period, together with the Mahapratisaradharai Sutra (1467) recently discovered in the depository made inside the body of arhat statuette no. 11, provide valuable clues about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made.

They are also regarded both as fine examples of arhat imag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as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ion of molded Buddhist images of that time.

The statuettes are characterized by a longer upper body and an oval face with voluminous cheeks, typical features of Buddhist figur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Similarly, the dharani manuscript, dated 1467, discovered inside the depository of one of the statuettes has the same features as the copies of the Mahapratisaradharai Sutra enshrined in the Buddha images of early Joseon, suggesting that all of these arhat images were produced in 1467.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date of production of these images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clues for studies on the arhat images of early Joseon, including the sixteen arhat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such as those enshrined in Heungguksa Temple in Namyangju.

[Key words] Sangwonsa Temple, Yeongsanjeon, Early Joseon, arhat image, sixteen arhats, molded image, Mahapratisaradharai Sutra